지난 3월 '매입형 유치원'으로 개원한 서울구암유치원 /연합뉴스

서울 '매입형 공립 단설유치원' 4곳 개원

2021년까지 같은 형태로 30곳 신설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공립 단설유치원' 4곳이 서울에 추가로 개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이런 형태의 유치원 30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내 서울금낭화유치원(6학급), 서울신정유치원(12학급), 서울수명유치원(11학급) 3개원과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내 서울좋은소리유치원(6학급) 등 총 4개 매입형 공립 단설유치원을 개원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올해 3월1일자로 개원한 서울구암유치원을 포함해 총 5개 매입형 공립 단설유치원이 설립됐다.

매입형 유치원은 매매 신청을 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에 부합되는 유치원을 선정·매입하면, 사립유치원은 폐원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공립 유치원을 설립하게 되는 형태다.

기존 유치원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고, 교육의 안정성을 위해 기존 재원생들도 학부모 요구에 따라 모두 수용하게 된다.

유치원 교사는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된 교사가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매입형 유치원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 후보자를 추가 선발한 바 있다.

/한용수 기자

전체대학 16% 블랙리스트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된다

올부터 최대 3년간 재정지원 'NO'
4년제 11곳·전문대 10곳 제외
"학자금 대출제한 여부 주의"

올해부터 최대 3년간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 51곳이 정해졌다. 이중 21개 대학은 지난해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하위 평가를 받은 대학이고, 30개교는 진단에서 제외된 곳으로 전체 대학의 약 16%가 교육부 지정 '블랙리스트'인 셈이다. 특히 이들 대학 중 4년제 11곳과 전문대 10곳 등 21곳은 2020학년도 학자금대출도 제한되므로 수험생들은 지원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272개교 명단을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4년제와 전문대 등 전체 323개 대학 중 나머지 51교는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재정지원 제한은 원칙적으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상위 평가를 받은 대학을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 Ⅰ·Ⅱ순으로 선정해 정부 재정사업 참여 가능 여부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2020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교육부

구분(제한범위)		학교명
4년제(11개교)	일반상환 50% 제한 (4개교)	가야대학교, 금강대학교, 김천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100% 제한 (7개교)	경주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창신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전문대(10개교)	일반상환 50% 제한 (5개교)	고구려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세경대학교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100% 제한 (5개교)	광양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51개 대학 중 4년제 11곳과 전문대 10곳은 정부 재정지원은 물론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4년제 대학 중에서는 가야대·금강대·김천대·예원예술대 등 4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50%로 제한되고, 경주대·부산장신대·신경대·제주국제대·창신대·한국국제대·한려대 등 7교 입학생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물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문대 중에서는 고구려대·두원공대·서라벌대·서울예술대·세경대 등 5개교는 일반상환 50% 제한을 받고, 광양보건대·동부산대·서해대·영남외대·웅지세무대 등 5개교는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대출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교육부 진단에서 제외됐던 예원예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권고됐던 정원 감축을 이행하지 못해 국가장학금 2유형 및 학자금대출(일반) 50% 제한 조치가 적용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제한 여부는 교육부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세종대 대학일자리사업단

공채대비 '스텝 바이 스텝 프로그램' 진행

세종대학교 대학일자리사업단은 2019년 하반기 공채대비 'Step by step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하반기 대기업 공채 시즌을 준비하거나 나만의 자기소개서를 완성하지 못한 취준생과 취업 준비를 하는 3학년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세종대 전경 /세종대학교

3일과 4일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2019년 하반기 채용트랜드 ▲기적의 자기소개서 작성법 ▲업직종 및 기업 분석 방법 세 가지로 구성된다. 강사진은 ▲권성일 강사 ▲신길자 강사 ▲임영찬 강사로 구성된다.

2019년 하반기 채용트랜드에서는 하반기 대기업 공채 시즌을 준비하는 취준생을 위한 채용트랜드 강의를 진행한다. 기적의 자기소개서 작성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지 못한 취준생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법 강의를 진행한다. 업직종 및 기업 분석 방법에서는 서류, 면접합격 향상을 위한 업직종 및 기업 분석 강의를 진행한다. 신청은 학생경력개발시스템(udream.sejong.ac.kr)에서 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고려대 채용박람회

아마존 등 국내외 120여 기업·기관 참가

고려대학교는 오는 3일~5일까지 3일간 교내 화정체육관에서 채용박람회(2019 Career Odyssey Festival)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박람회에는 올해 하반기 공채를 진행하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와 아마존, 블룸버그 등 해외 기업 등 120여 개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고려대 정문 /고려대학교

기업 채용상담 부스뿐 아니라 고려대 크림슨창업지원단 부스도 운영, 학생 창업 활성화 정책, 창업 교과목 소개, 보육 중인 입주기업과 학생창업기업의 리크루팅, 교내 스타트업 홍보 등도 진행되고, 청년고용정책 홍보 등을 위한 고용노동부 부스도 운영된다.

고려대는 행사기간 중 학생 이동 편의를 위해 교내 셔틀버스를 증설 운행하고, 이 행사와 더불어 2019 하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직업·직무 정보, 구직스킬 증진교육, 진로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한용수 기자

취업 더 어려워져… 신입채용 3년 연속 ⬇

기업 718개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
48.9%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수립'

대졸 신입 채용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일 사람인이 기업 718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신입 채용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1.1%가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48.9%는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수립'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62.7%가 '채용 계획이 있다'고 한 것과 비교해 11.6%포인트 감소한 수준이고, 2017년 하반기(64.3%)보다는 13.2%포인트 감소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신입 구직자들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의 경우, 채용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41.5%에 그쳐 10곳 중 4곳만 채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은 57.1%가 채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IT'(63.5%), '서비스'(59.4%), '식음료/외식'(57.1%) 등이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최근 업종경기가 부진한 '건설'(40%) '자동차'(43.8%) '조선/중공업'(44.4%) '제조'(45.5%) 등은 상대적으로 채용하는 기업이 적었다.

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라는 기업이 56.9%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보다 감소했다'가 30.2%, '지난해보다 확대했다'는 기업이 12.8%로 집계돼 전반적으로 채용 규모 역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보다 감소했다'는 응답의 경우 대기업은 17.4%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38.1%로 중소기업의 축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삼육대, 차세대 음악 영재 키운다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설립

삼육대는 경기도교육청의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설치운영 승인을 받아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원장 박정양)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에서 순수 클래식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영재교육 시설이 부족한 만큼, 해당 지역에서 '음악영재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육대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은 현악부, 관악부, 성악, 작곡, 피아노 등 분야에서 예비영재와 영재과정,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 학기 18주 과정으로, 매주 일요일 교내 음악관과 대강당에서 수업이 진행된다.

영국왕립음악원 공인 영어교재를 활용한 ABRSM이론,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시창청음을 결합한 이론교육을 시행하며, 신입생음악회, 향상음악회 등을 통해 한 학기에 최대 3회 이상 무대에 설 수 있다. 매 학기 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한다.

삼육대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전경 /삼육대학교

교수진으로는 드라마 '밀회' 유아인과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박정민의 실제 연주자로 잘 알려진 피아니스트 송영민, SBS '영재발굴단'의 '꼬마천재' 박은서 등 비올라 교육계에서 주목할 만한 영재를 키워낸 김남중도 교수진으로 합류했다.

/한용수 기자